

영국 소매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의 현황과 편익

□ 영국 런던거래소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민간투자부문의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채권거래 접근성이 용이한 소매채권 전자거래플랫폼(electronic order book for retail bonds)을 신설하여, 민간부문의 투자자들에게 소규모 액면금액으로 개별 기업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, 영국 기업들에게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

□ 소매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은 2010년 2월에 30여개의 기업이 발행하여 거래하기 시작한 이후 2012년 말까지 총 23억 파운드의 자금조달을 하여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, 개방화되고 투명한 시장모델, 전자체결의 효율성 향상, 비용효율성과 간소화된 거래수수료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

□ **영국 LSE(London Stock Exchange)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민간투자부문의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채권거래 접근성이 용이한 소매채권 전자거래플랫폼(electronic order book for retail bonds)을 신설하여, 민간부문의 투자자들에게 소규모 액면금액(small denominations)으로 개별 기업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, 영국 기업들에게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**

— LSE는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높은 영국 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회사채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위해 2010년 2월 1일에 소매채권시장을 개설함

— LSE의 소매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은 영국 채권들의 가격발견기능을 용이하게 하고, 화면상 유동성을 집중시키기 위해 비용 효율성이 높고 투명한 메커니즘(mechanism)을 제공하고 있음

• 또한, LSE의 소매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은 회사채 발행업체들이 소규모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어 소규모 액면금액의 신규 채권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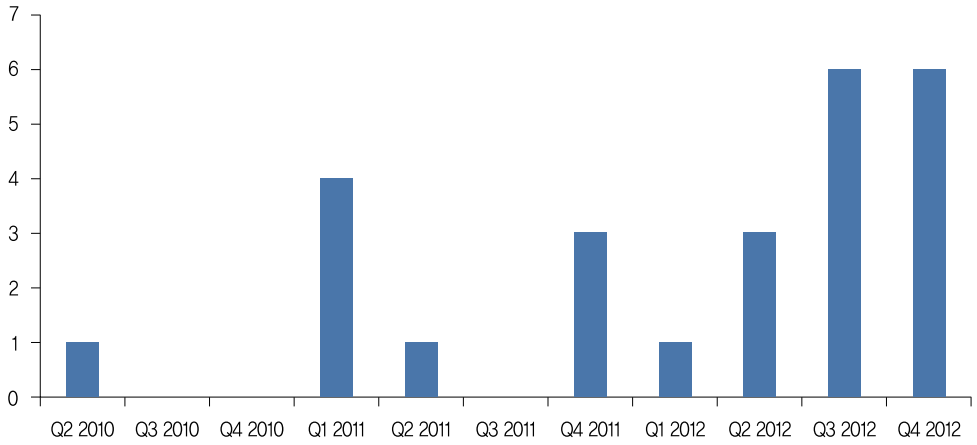
□ **소매채권 전자거래플랫폼은 2010년 2월에 30여개의 기업이 발행하여 거래하기 시작한 이후 2012년 말까지 총 23억 파운드의 자금조달을 하여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**

— 특히, 2012년 상반기에는 시장변동성 확대로 파운드표시 소매채권의 발행이 축소되었으나, 하반기에 소매채권의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간기준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음

— 2012년 하반기 소매채권시장은 11억 달러 규모의 자본조달을 하여 과거 18개월간 이루어진 규모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, 2013년도에 30억 파운드의 자금조달을 하여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

영국 소매채권 발행기업의 수



주 : 일부 구조화채권은 제외
자료: Investec

□ 소매채권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에 따른 편익

— 소매채권거래를 위한 개방화되고 투명한 시장모델

- 전용 시장조성인은 거래일동안 소매채권의 범위에서 양방향 호가제시를 할 수 있고, 정규 회원사들도 전자거래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특히 사적 투자자들은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화면상에 제시되는 가격을 보면서 소매채권을 거래할 수 있음

— 전자체결의 효율성 향상과 결제시스템으로 STP(Straight Through Processing)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제공

- 전자거래결제는 LSE의 CREST로 입력되어 사후거래시스템인 X-TRM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, 전자거래체결 데이터는 CREST에 미지급이자를 계산하고, 거래상대방을 대신하여 CREST에 결제를 지시하도록 하는 X-TRM에 전송되어짐

— 비용효율성과 간소화된 거래수수료

- 체결주문당 90펜스(pence)의 일률적인 소액채권 거래수수료 부과

— 감독규정과 시장감시

- 전자거래플랫폼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종류의 채권은 EU(European Union)의 정규 거래소에서 허용된 LSE 상장증권으로서, 높은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

— 표준화된 결제일정, 표준화된 호가단위 등 시장구조의 표준화

- 전자거래플랫폼에서 이용되는 모든 채권 중 국채(gilts)는 T+1, 모든 종류의 회사채의 경우 T+3과 같이 표준화된 결제일정을 적용
- 전자거래플랫폼에서 이용되는 채권의 최소호가단위는 1페니(penny)로 표준화

— 영국 투자자들에게 비용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매채권을 공급하길 갈망하는 발행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

선임연구원 박태준